

문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중심적으로) 교훈하는것이 무엇인가?
답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중심적으로) 교훈하는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 하시는 본분이다.

성경적 근거: 미가 6:8; 요한복음 5:39, 20:31, 3:16; 고린도전서 10:11; 로마서 15:4; 요한일서 1:3-4

질문 1: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한다고 했는가?

질문 2: 성경은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한다고 했는가?

질문 3: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것은 무엇인가?

질문 4: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무엇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가?

질문 5: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 6: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 7: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질문 8: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셨는가?(고린도전서 1:9)

문답 2 에서 공부한것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것 외에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해주며 믿는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말하면 믿는자에게 요구되는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성경은 이것 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 것”이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것인가?

우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점과 관계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로마서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럼 두 성경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원은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것을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에 구원을 얻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가 바로 야고보서의 초점인 것이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에 걸맞는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자에게로부터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로마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성경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확하게 앞 뒤가 맞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믿는자에게 주어지는가를 가르쳐준다.(에베소서 2:8) 성경이 없이는 이런 부분들을 알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 부분도 많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구체적인 모든 상황속에서 정확하게 취해야 될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성경은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 하나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 뿐 아니라, 성경은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일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런것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의 초점은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형성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것에 주목해야 한다. “관계”라는 개념을 배제하고는 성경을 옳바로 이해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절대로 추상적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사역하셨다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셋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모양의 관계로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6 가지의 관계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 (예레미야 18:1-4)
- 주인과 종의 관계 (로마서 14:7-9)
- 목자와 양의 관계 (요한복음 10:11-18)
-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누가복음 15: 11-31)
- 친구와 친구의 관계 (히브리서 4:14-16)
-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요한일서 4:7-12)

성경은 이렇게 여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넷째, 성경속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주요인물들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다섯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그의 역사하심을 그저 감정에 치우침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말씀을 비취볼 때 알 수있다.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서 그리는 어떤 막연한 능력자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관계로 부터 형성되는것 임으로 분명한 것이다.